

## Working Group Meeting(青年部交流會)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 세 훈

교토에서 열렸던 제8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에서부터 시작된 Working Group Meeting의 세 번째 모임이 집담회가 있기 전날 저녁에 있었다. 이 모임은 조규상 교수님과 일본 M. Tati 교수님의 의견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젊은 층에서도 모임을 별도로 가짐으로서 향후에도 이 집담회가 지속적이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측에서는 일본 산업의학대학의 T. Higashi 교수가 그리고 한국측에서는 본인이 대표를 맡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목 모임으로서 학회가 있기 하루 전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각 한두 사람씩 발표를 하고 자기소개만 하는 정도로 해서 끝냈다. 이번부터는 전날 저녁때의 모임 외에 처음으로 별도로 본 학회의 한 session을 배정 받아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명칭을 처음에는 청년부 교류회라고 하였으나 연령층과 관계된 이름이 참석자들의 실제 나이와 걸맞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부터 Working Group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5월 30일 첫날 저녁때의 모임에서는 일본측에서 交代制勤務改善, 作業改善, 化學物質管理作業改善 등 작업환경개선에 따른 변화 혹은 그 추후 관리에 대하여 4명의 참가자가 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은 대개 산업장에 근무하는 산업인들이 위의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한 후의 경험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원래는 한국 측에서도 비슷한 주제 즉,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것을 발표하자고 Higashi 교수가 작년 가을에 편지를 보내왔으나 필자가 그때까지 발표된 최근 국내외 관련학회지들을 대상으로 모두 조사해본 결과 적당한 연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연세의대 노재훈 교수 등과 상의하여 우리는 산업보건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선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건관리대행에 의한 산업장 보건관리, 영세사업장 산업보건 사업(국고지원), 및 조선업 근로자의 산업보건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에 대하여 각각 순천향의대의 우극현 교수, 연세의대의 원종욱 선생, 그리고 이화의대의 하은희 선생이 발표하였다. 시작하기 전에

Tati 교수님께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승한 교수님께서 역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

발표 내용은 앞서서 말했듯이 주로 경험 발표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학술 발표라기 보다는 화기에애하게 간혹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좋은 분위기였으며 이것은 참가자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그 동안 한두 번씩 만난 적이 있어서 서로 낮이 익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7개의 주제를 90분 동안 발표했어야 하는데 맨 처음으로 발표한 Dr. I. Harabuch가 많은 시간을 쓰는 바람에 그 다음의 것들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Harabuchi 선생에 관하여는 뒤에 다시 언급할 내용이 있다) 따라서 한국측의 참가자들에게도 빨리 진행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속으로는 매우 미안하면서도 그 당시 발표하는 시간을 잘 조절하여 주었던 세분 선생들이 고맙기도 하였다. 발표가 끝난 다음 식사를 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이 역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Higashi교수는 이러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좌석 배치를 일본인 참가자 2명 한국인 1명의 순으로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Sapporo에 있었으나 그날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두명의 자리가 비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 유감이었고 Higashi 교수가 두 사람의 참가 여부를 물으면서 서운해하기도 하였다.

6월 1일 마지막 날 9시부터 한시간 동안 진행된 Working Group Session에서는 역시 Higashi교수와 필자가 진행을 맡아보았다. 주제는 작년 가을에 이미 정한대로 산업보건에서의 정보 system이었는데 이것은 Higashi 교수의 idea였으며 그 이유는 주제를 주제 측에서 상대방과 상의하여 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각 나라에서 두명씩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측에서는 노재훈 교수가 '산업보건 정보system의 설계와 분석'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신상구 실장이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산업보건 정보관리system'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발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5월 31일 저녁의 만찬회가 끝나 다음 Working Group참가자들은 북해도의 Sapporo 에서 살고 있는 앞서의 Harabuchi 선생이 예약해 높은 노래방에 가서 2차 모임을 가졌다. Harabuchi 선생은 그 성씨의 발음이 할아버지와 매우 비슷하며 우극현 교수가 경상도에소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하므로 그 선생의 성씨와 정확히 들어 맞다고 하여 한바탕 웃기도 하였다. 노래방은 시내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었는데 초대를 받은 우리측의 참가자를 모으는데 또 한번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참가자가 7명이라고 하자 Higashi 교수는 매우 섭섭해하였다. 모두 22명이 갔고 그 중에는 나고야 의대의 Takeuchi 교수도 자리를 함께 하셨다. 작년에 유성에서 있었던 제 9회 집담회때 노래방에 일본측의 참가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갔었는데 당시에 일본 노래가 없어서 매우 서운해하였고 우리로서도 미안하여 당시에 일본노래도 부를 수 있는 노래방을 수소문하였으나 답은 '없다'였다. Higashi 교수는 작년에 귀국하자마자 비

록 일본 노래는 없었으나 매우 좋았다면서 제 10회 집담회에서도 노래방에 가되 한국 노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역시 한국 노래가 있었으며 그것도 무려 600곡 이상이나 되었고 전체가 만 곡이 넘었다. 할아버지 선생(?)은 이 집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한국노래도 있는 집은 그집 하나 뿐이라고 하였다. 재미있는 점은 인원과 시간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부르는 노래의 수나 마시는 술의 종류와 양은 자유였다. 노래방이 끝난 다음 그 유명한 샷뽀로 생라면을 먹으러 가기도 하였다.



## 8센티미터에서 수천미터까지

**명** 주실을 뽑아내는 누에의 길이는 기껏해봐야 8cm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누에에서 나오는 실의 길이는 자기 몸의 이천 배나 되는 실을 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누에가 그만한 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능력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누구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몇 천배의 잠재된 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잠재능력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을 이룰수가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개발해야 할 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누에처럼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명주실을 끌어내보기 바란다.

진정으로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는 바로 그것이다.